

인화학교 재학생 7명 전학 난제

친권자 인화원장 동의 있어야... 시교육청 설득 검토

광주시교육청이 인화학교에 대한 청각장에 특수교육 위탁기관 취소를 위한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법률상 친권자가 해당법인 관계자로 돼 있는 재학생 7명의 처리문제가 최대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의 전학은 물론 생활하고 있는 인화학교 내 복지시설 인화원에서 퇴소하는 것도 친권자(후견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9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인화학교에는 초등 4명, 중학 11명, 고교생 7명 등 모두 2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시 교육청은 통학하는 15명의 학생

들의 경우 부모와 학생이 원하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나 또 다른 장애인 특수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들을 위해 일반학교에 청각장애인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확보하는 데 안을 마련 중이다.

문제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연고자가 없는 재학생 7명에 대한 대책이다. 현재 이들에 대한 친권자는 인화학교에 있는 인화원장로 돼 있다. 즉,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전학이나, 인화원 시설퇴소를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시교육청은 친권자를 설득해 이들

을 전학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거처인 인화원에서 보내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수용자들의 수를 초과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재단에 이익과 직결되는 퇴소결정을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애초 공립 특수학교(선우학교)가 오는 2013년 3월 개교하면 재학생 모두를 수용할 계획이었다. 인화학교에 대한 청각장에 특수교육기관 위탁교육 지정 취소와 폐쇄가 이뤄지면 이들을 선우학교에서 교육시키는데는 게 끝자다.

이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 교육법상 의무교육대상이기 때문에 유일한 청각장애인 대상 특수학교인 인화학교가 문을 닫으면 공립 장애인학교인 선우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화 도가니 열풍으로 성폭력 사태가 발생한 인화학교 폐쇄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교육청으로서의 당장 재학생 학생들에 대한 교육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인화학교 폐쇄 검토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성접대 받은 경찰

사건 무마 대가... 광산경찰 2명 체포

광주광산경찰 소속 경찰관 2명이 사건 무마 대가로 성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은 29일 사건 무마를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식사와 성 접대 등 향응을 받은 A경사와 B경장 등 2명을 뇌물 수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 등은 지난해 12월 초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의 한 식당과 안마시술소에서 사이버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6000만원을 갱김 혐의로 조사를 받던 타목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계팀에서

말고 있던 사기 사건을 인계받아 타씨를 조사했으며 사건 무마 부탁을 받고 검찰에서 불기소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사와 B경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금품 수수와 뒷선상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니원침 (8406) 김종두



‘도가니’ 수사·재판기록 분석 착수

경찰, 추가 성폭행·감독·재단 비리 초점

광주시교육청 감사 돌입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원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 방침을 천명한 경찰이 사건 당시 수사·재판 기록 분석에 착수했다. 광주시교육청도 학사운영·회계부분 감사에 돌입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추가 성폭행, 관할 당국의 관리·감독, 인화학교 재단 내부 비리 등 세 가지 의혹에 맞춰져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광주 현지로 파견된 분청 지능범죄수사대

5명과 광주청 소속 수사관 10명은 이날 광주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과거 수사 및 재판 기록을 넘겨받는 작업을 진행했다.

광주청 소속 수사관 10명과 분청 형사와 지휘부는 2000년 사건 발생 당시 가해 교사들이 추가 성폭행을 저질렀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급파된 지능범죄수사대는 관할 행정 당국이 적절하게 관리·감독을 했는지, 인화학교 내부에 구조적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가로수 은행터는 공무원 29일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무단으로 은행을 주우려다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가로수 보호를 위해 도로변의 은행을 수확하고 있다. 채취한 은행 열매는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된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양승태 대법원장 “도가니 충격적”

영화 ‘도가니’를 둘러싸고 법원 양형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도심 영화관에서 직접 이 영화를 관람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밤 8시20분부터 서울 중구 명동 CGV에서 극장 맨 뒷자리에 앉아 이 영화를 끝까지 지켜봤다.

양 대법원장은 영화를 본 뒤 “오랜만에 보는 영화였는데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충격적이면서 감동적이었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 영화에서와 같은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대법원 관계자가 전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다만 영화가 고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판과정을 사실과 다르게 보여줌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가 근거 없이 훼손된 점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장성서 트럭-승용차 충돌 3명 숨져

장성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해 3명이 숨졌다.

29일 새벽 3시30분경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24번 국도 모 자동차 정비업소 앞 도로에서 정모(25)씨가 운전하는 카렌스 차량과 김모(29)씨가 운전하던 대형 트럭이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카렌스 운전자 정씨와 동승자 등 4명이 크게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정씨를 비롯해 같이 타고있던 3명이 숨졌고 1명은 중태다.

경찰은 “카렌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왔다”는 트럭 운전자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숨진 20대 여성들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전남 교사 4명 학교 제자 상대 성범죄

최근 6년간... 모두 해임

전남지역 교사 4명이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교원 성범죄 연루 현황에 따르면 전남 지역 교원 11명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명은 복직할 수 있는 징계를 받았으며 5명은 복직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사 4명은 소속 학교의 제자를 대상으로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해임됐다.

광주는 이 기간 고교 교사 1명이 성범죄에 연루돼 파면됐으나 법원 판결로 복직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여객선서 활어차 추락

신안서... 운전사 구조

신안 앞바다에서 출발해 압해도 송공항으로 입항하던 여객선에서 활어차가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다.

29일 오후 3시께 압해도 송공항 선착장 300m 해상에서 신안농협 소속

25t 여객선에서 2.5t 활어차가 바다로 추락했다. 운전자 추모(32)씨는 인근 항해 중인 어선 선원이 구조됐다.

목포해경은 여객선 앞에 설치된 램프를 내리는 순간 사고 차량이 갑자기 후진해 해상으로 추락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o@

아파트서 40대녀 추락사

29일 오전 11시40분경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 앞길에서 김모(여·48)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이 아파트 13층에 사는 가족을 방문하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들려 밖에 나가 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갯벌서 조개잡다 실종 이틀만에 구조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 실종된 60대 이틀 만에 극적으로 구조돼 안도의 한숨.

○2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배모(65)씨는 전남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가 물이 차올라 바다에서 빠져나오려다 4시간여의 사투 끝에 한 무인도에 도착.

○무인도에서 폐가를 발견한 배씨는 이불 등을 찾아 덮고 체온을 유지하고 날이 밝자 다시 갯벌로 나와 해경 등에 구조됐는데 “수영에 자신이 있었지만 물살이 워낙 빨라 바다로 계속 떠밀려 갔다”면서 “하마터면 다시는 가족들을 못 볼 뻔했다”며 기쁨의 눈물.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PREMIUM BUFFET MELUSTIA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다들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특허청 서비스등록 제41-0187289

돌잔치, 피로연, 세미나 각종 모임 및 행사 (500석 완비)

소모임(룸) : 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대모임(룸) : 52인석, 92인석, 150인석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 일				토·일·공휴일			
이용시간	성 (중학생 이상)	인 (초등학생)	미취학아동 (5세~7세)	이용시간	성 (중학생 이상)	인 (초등학생)	미취학아동 (5세~7세)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 금요일 DINNER는 주말요금으로 적용됩니다.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 671-1199**

유·스퀘어 문화관 2F CGV 옆 터미널 2층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 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쪽리 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061)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	---	----------	---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